

1. 문화가 다양하기 어려운 나라, 한국

- 문화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공유하는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로 정의됨
- 유네스코가 2001년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에서 정의한 문화의 개념은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살아가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 신념 등을 포괄하는 사회 또는 사회 집단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징의 집합'으로 위의 문화의 일반적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문화는 특정 국가나 인종, 집단에서 나타나는 구별되는 행동 양식과 정서, 관습 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한국 사회는 배타적인 단일민족주의, 강고한 가부장제, 능력 우선주의와 경쟁의 심화, 성장 우선주의에 갇혀 나와 다른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회라는 현실을 애써 외면해 왔음
- 또 제도적, 관행적으로 (남성) 한국인이라는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어 실질적인 배제, 소외와 빈곤 등의 불평등과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 불평등한 현실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는 주류가 되지 못하는 집단 (여성, 타인종,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가 넘쳐남
- 불평등, 차별과 혐오는 이들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의 확산을 가로막아 한국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음

2. 인터넷의 특징점

- 인터넷은 공유의 철학으로 시작되었음
- 인터넷의 특징점에 기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공유하고 개방해왔음. 이런 이유로 인터넷이 진정한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를 실현했다고도 평가되고 있음
- 인터넷의 이론적인 혹은 이상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인터넷이야말로 문화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기술 도구로 간주할 수도 있음. 사상 혹은 의견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매체에 담거나 각인해야 함. 저렴하지만 복사의 양에 있어 한계가 있는 도서와, 값비싼 방송 광고료 등과 비교해 인터넷은 매우 저렴한 이용료로 글, 이미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런 주장은 소수 언어를 쓰는 민족, 인터넷 접속이 원천적으로 어려

운 지역 등을 고려한다면 인터넷의 이론적인 측면만을 이상화한 것

3. 플랫폼의 시대

-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과 이를 소비할 사람을 매개하는 인터넷의 가상공간을 플랫폼이라 하는데,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열차에 승하차하는 장소를 말하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차용한 것임
- 네이버에서부터 구글, 카카오, 배달의민족, 텔레그램, 페이스북, X(트위터)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 검색서비스, 소셜미디어, 메신저서비스까지 꽤나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모두 플랫폼이라는 범주에 포괄됨
-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개인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대부분 플랫폼
- 2023년 기준 한국의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97%이며, 인터넷 이용률은 94%, 인터넷 쇼핑 이용률은 75%에 달함
-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활동이 소비, 친교, 새로운 지식 습득이라고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활동은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4. 인터넷으로 꿈꿨던 새로운 시대

- PC통신과 인터넷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익명성이었을 것
-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으로 사회적 소수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
- 진보네트웍센터의 활동가이자 정보인권연구소의 상임이사인 장여경은 PC 통신을 처음 접한 뒤의 경험을 아래와 같이 회고함

표현의 전달 범위 역시 그다지 다르지 않아서 내 표현물 대개는 가족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그쳐 있었다. 그 중 또 절대 다수는 평가를 받기 위한 (공개)일기, 독후감, 리포트였는데, 이런 표현물들은 보는 사람의 의중을 살피는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내 또래들에게 진짜 표현물은 교사나 부모 몰래 친구와 주고 받는 쪽지, 공동 일기, 앙케이트, 팬팔이거나 은밀히 써내려 간 비밀 일기, 만화, 소설과 같은 것들이었다. 소설 나 영화 에서 보듯이 청소년기는 은밀한 표현물들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었고, 나 역시 이런저런 것들을 몰래 끄적거리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지금 와서 읽어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시간 낭비들이고, 선생님이나 엄마에게 걸리면 공부 안하고 딴 짓한다고 야단을 들곤 했지만, 이런 위험들은 기꺼이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나는 끄적거릴 때 유일하게 자유로웠다.

그런데 컴퓨터 통신에 '들어가' 보니 이 공간에서는 표현하기가 너무 쉬웠다. 자유는 흔하다시피 널려 있었다. 목숨 걸고 끄적거리던 나는 이런 환경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다. 온라인으로 첫 게시물을 올렸던 날, 이 글이 정말 사람들에게 읽힐지 자신이 없어 몇 번이고 조회수를 확인해 보았다. 실체가 없어 가상이라고 불리는 이 전기 공간은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그 어느 혁명적 도구들보다 묵직한 실체로 새 시대를 열었다. 오프라인에서는 보잘 것 없는 어린 여자였지만, 온라인에서는 나의 사회적 약점들이 희석되거나 감추어졌다. 그래도 그 전파력은 공중파 방송 못지 않았다. 잘 쓰기만 하면, 전세계를 상대로 발언할 수도 있었다. 형태는 글말이지만 여기에 들이는 노력은 입말과 다를 바 없었다. 빈 손으로도 모임에 속하고,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매체가 갑남을녀 누구에게나 주어졌다. 그것이 이 매체의 가장 혁명적인 특성이다.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운동사회 내 성폭력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와 함께 운동사회 보호라는 명목으로 덮어두고 있었던 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가해자 16명의 실명을 게시판에 공개함
- 여성들의 용기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공조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에 큰 힘을 실어준 중요한 전환점으로 한국 온라인 여성주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음
- 2000년대 중후반 플랫폼은 공론장 문화를 꽃피우는 토대로 기능하기도 했음. MBC, KBS, SBS 등의 방송사나 조중동, 한겨레, 경향 등의 신문사처럼 기성세대 중심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세대는 사회와 정치권을 향한 비판과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플랫폼을 통해 가질 수 있었음
- 다음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
- 2006년 다음은 뉴스 댓글을 시작으로 아고라, 블로그 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 광우병 사태 때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촛불집회를 조직했고, 140만 명이 이명박 탄생 서명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을 압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형식으로 발현되기도 함

5. 문화의 다양성과 인터넷 플랫폼의 가능성

- 인터넷 플랫폼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퍼뜨리고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임
- 앞서 언급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게시판은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운동권 사회의 성폭력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론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음
- 자본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은 사회적으로도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데, 서로의 연대를 위해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정보는 취약성을 극복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함

- 다른 사례로 오픈넷은 2021년부터 임신중단약을 배포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사이트를 전체 차단당한 국제단체인 위민온웹을 지원하고 있음.
- 위민온웹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재생산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계의 여성들에게 임신중단에 관한 정보와 소정의 기부금(한화 10만원 정도)을 받고 임신중단 약물을 배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의 인터넷 검열 행정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 위민온웹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불법약물을 배포한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함
- 위민온웹 홈페이지에는 임신중단 약물을 배포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임신중단약의 안전성과 부작용, 임신중단약물 복용 이후 대처법에 관한 정보도 매우 자세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트 전체 차단을 결정해 임신중단약물과 복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알권리까지 모두 차단해 버렸음
- 임신중단이 여전히 사회적 해악이나 낙인으로 인식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임신중단에 관한 정보는 그 자체로 견고한 가부장제 문화에 균열을 내는 행위이기도 하고, 약자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실천임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 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6. 인터넷 플랫폼은 양날의 검이기도

- 인터넷의 장점은 정확히 인터넷의 단점으로 작용하며 우리에게 되돌아 왔음
- 군중은 익명성 뒤에 숨어 플랫폼을 통해 혐오표현을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확산하며 취약한 계층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데 일조해왔음
- 또 인터넷 플랫폼은 이제 사람들의 일상을 매개하는 수준을 넘어 블랙홀처럼 우리의 삶을 흡수해 노동의 방식, 소비의 방식,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결정해주는 수준이 되어 버렸음
- 플랫폼은 비교적 새로운 매체이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은 글로벌 플랫폼이기도 하여 플랫폼의 역기능이 발생하더라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토대가 빈약해 발빠르고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허위정보나 혐오발언이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고,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정밀하게 개인을 상업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타게팅할 수 있음
- 또 채팅 어플리케이션 같은 플랫폼으로 성착취물이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음
- 그렇지만 플랫폼은 이런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7. 그렇지만 플랫폼 규제는 신중하게

- 국제디지털인권단체는 인터넷이 검열과 감시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정보매개자(쉽게 말해 플랫폼 운영자)가 불법정보를 인지했을 때는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하되 인지하지 못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를 각 국가와 사회가 확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한국은 악성댓글로 방송인이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겪었고,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발생률도 높아 플랫폼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사건이나 범죄(특히 성범죄)가 발생하면 플랫폼 규제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짐
- 그렇지만 플랫폼 규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며 플랫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부작용 초래할 수 있음
- 규제의 강화 요구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사전/사후 검열을 강화하자는 요구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방식의 규제 강화는 플랫폼의 독점화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디지털인권 활동가들은 플랫폼 규제가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음.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 해당 개정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강제하고, 분쟁 발생시 소비자에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우고자 함
-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수집·보관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
- 오픈넷은 해당 개정안이 정보매개자를 포함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지우게 한다면 사실상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의견을 낸 바 있음

8. 우리에게 더 많고 다양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보이콧임
- 메타 등 SNS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입자 수의 감소
- 2022년 메타가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이용자가 올린 글과 댓글, 외부 활동인 앱 활동까지 추적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주 등 제3자와 공유하겠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가 국내 내용자들의 보이콧 움직임에 방침을 철회한 바 있음
- 보이콧이 가능하려면 더 많은 수의 플랫폼이 있어야 함
- 플랫폼의 다양성이 강화되어야 보이콧이 가능. 텔레그램과 카카오톡만 옵션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이콧이 어려움

9. 더 많은 이들이 다름을 존중하고 피해자(혹은 약자)에게 연대하는 사회 만들어야

- SNS 상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례를 토대로 대항표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혐오표현 프로젝트 연구팀장인 캐시 버거는 혐오표현을 발화하는 발화자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으나 혐오표현을 초래하는 SNS 상의 게시물이나 댓글들이 사장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코멘트(대항표현)를 남긴 것은 효과적이었다고 밝힘
- 이런 활동이 대항표현을 지지하지만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임

- 또 대항표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보다 많아야 효과가 컸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대항표현을 하거나 참여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컸다고 함
- 피피티 위의 이 이미지는 캐시 버거가 연대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례로 제시했던 것이다. 유럽 축구 경기시 소수인종의 축구선수들에게 바나나를 던지는 혐오표현에 대한 동료 선수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이들의 연대적인 대항표현이다. 2014년 두 명의 브라질 출신 축구선수가 경기 도중 경기장 안으로 떨어진 혐오의 상징물인 바나나를 주워 먹어버렸고, 팀원이 온라인에 “우리는 모두 원숭이다”라고 말하며 지지하는 대항표현을 올리자 전 세계가 즉각적으로 이 대항표현에 반응하며 이들을 격려했다는 것이다. 버거는 각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혐오표현 발화자를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시도가 더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 플랫폼을 규제하거나 보이콧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텔레그램을 보이콧한다고 해서 텔레그램 안에서 성범죄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을 떠날 이유가 없기 때문임. 이런 범죄의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초대된 이들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
- 워마드 운영자가 음란물유포죄 방조 혐의로 입검된 일이 있었음. 오픈넷이 법률적 지원을 했었음. 비난 엄청 받았음. 트랜스젠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표현이 워마드 내에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
- 팩트체크 역량 강화와 포괄적 성교육을 포괄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팩트체크 정말 중요함. 정치인들이 허위의 정보를 퍼뜨리기도. 상반되는 정보를 접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람들은 팩트체크를 해보아야 한다. 이를 교육시켜야 한다.